

육계자조금



▲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금상 수상작

자조금소식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육계소식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D-20일 앞으로 다가와

사양관리 위장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I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9** volume 23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192개 출품작 접수... 홍보자료로 활용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양계사진의 향연이 펼쳐졌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8월 25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양계사진 공모전 출품작을 대상으로 수상작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를 한 결과, 금상에 '토종닭' 작품을 선정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양계사진 공모전에는 총 65명 192개의 출품작이 접수돼 양계사진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출된 192개 작품 중 최종심사 전날 열린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별, 최종심사에는 60여개의 출품작이 자웅을 겨뤘다.

2차 최종심사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인사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심사위원들의 결과를 합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날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에 이홍재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인사에는 육계자조금대의원회 한병권 의장과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차장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인사에는 한국프로사진가협회 김세권 고문과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조용훈 교수가 참여했다.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된 최종심사는 60개 작품 중 1차 심사를 통해 입선 28개 작품을 선정한 후 2차 심사에서는 선정된 28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표에 의거해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하여 금상(1점), 은상(2점), 장려상(5점) 등 총 8개 작품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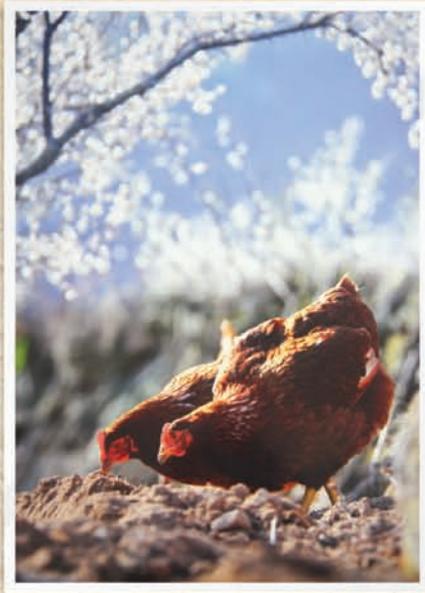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예의 금상에는 파란 하늘과 하얀 꽃이 핀 나무를 배경으로 두 마리의 닭 모습을 담은 '토종닭'이 차지했고, 은상은 장날에 산 닭을 등에 지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장날'과 어미닭을 따라 졸졸 걸고 있는 병아리의 모습을 담은 '봄나들이 종종중'이 수상했다. 이밖에 '병아리를 손에 었다', '나의 보물들', '자태', '소풍', '토종닭의 하루'의 5개 작품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초에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향후 육계자조금사업의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계사진 공모전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작



◀ 금상 - 토종닭



▶ 은상 - 장날



▲ 은상 - 봄나들이 종종중



▲ 장려상 - 병아리를 손에 었다



▲ 장려상 - 나의 보물들



▲ 장려상 - 자태



▲ 장려상 - 소풍



▲ 장려상 - 토종닭의 하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소비자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 알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닭고기 소비홍보 활동을 펼쳤다.

페스티벌에 설치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부스에는 다양한 닭고기 가공제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눈으로 직접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황금 닭을 잡아라' 게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동시에 닭고기의 영양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히, 게임에 참가한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국산 닭고기 관련 다양한 경품과 리플렛 등을 받기 위해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부스를 방문하려는 관람객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미와 소비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스는 이번 우수축산물 페스티벌에서 단연 돋보여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된 AI, 구제역으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들에게 힘이 되고자 '고, 고, 고, 힘내라 대한민국 축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전국 65개가 넘는 축산물 브랜드가 참여해 열띤 홍보를 펼치며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장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1



2

- 1 '황금닭을 잡아라'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관람객들
- 2 도우미가 '황금닭을 잡아라' 게임에 대해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 3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관람객들
- 4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가 황금닭을 잡아 경품을 받았다.
- 5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는 황금닭을 잡아라 게임



3



4



5

전국 양계인들의 최대 축제 '2011 전국 양계인대회' 9월 개최

22~23일 양일간 대구 EXCO에서 열려... 화합의 한마당 마련

전국 양계농가들의 최대 축제인 '2011 전국 양계인대회'가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기간인 오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열려 양계농가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1 전국 양계인대회는 양계산업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계 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체감 형성과 더불어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양계인대회는 전국의 양계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약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자리를 빛내줄 참석자들을 위해 대한양계협회에서는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상 및 발전방향성을 담은 영상을 관람하는 양계 VISION(비전) 선포식, 양계인 경쟁력 강화 세미나, 공연 및 연찬행사를 진행하는

양계인의 밤 등이 마련돼 있다. 다음날인 9월 23일에는 간단한 폐회식을 갖고 단체로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행사 진행 대행사로 CE 커뮤니케이션 선정

한편, 전국 양계인 대회의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행사 선정이 완료됐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7월 25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2011 전국 양계인대회'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최종심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CE 커뮤니케이션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전국 양계인대회 대행을 맡게된 CE 커뮤니케이션은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행사기획 및 인원 인솔전략 등을 짜고 진행·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게 된다.

이로써 대행사 선정까지 완료된 2011 전국 양계인대회는 이제 성공적인 개최만을 남겨두게 두었다. 🍀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D-20일 앞으로 다가와

오는 9월 21일 개막, 대한양계협회 주관단체로 사업 추진 박차

대한민국 축산업계 최대의 전시·이벤트 행사인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관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21일 개막해 24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EXCO에서 열리는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각종 FTA와 지난해 발생한 AI 및 구제역 등으로 인해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위상을 높이고자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축산 5개 생산자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운데 주관단체로 선정된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국내 축산업의 기술 발전과 설비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의 비교 전시로 상호 기술 및 정보의 교환을 통한 우리나라 축산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시업체의 해외 투자 진출 및 시제품의 수출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 기자재와 축산홍보관 전시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로 축산물 소비홍보, 각종 시식회,

학술세미나, 우수 축산농가 선발 등이 마련돼 있어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국내 축산 관련 업체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람회 전시장은 대구 EXCO의 1층내 모든 전시관과 옥외 전시장으로 구성되며 EXCO 내 세미나실을 이용하여 각종 학술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시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한민국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산 신기술관'이다. 이와함께 총 134개 업체가 참여해 500여개에 달하는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고 옥외 전시장에는 각종 소독장비와 차량 등의 중장비 등이 배치돼 전시될 예정이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전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배치한 것도 이번 박람회의 특징. 관람객들의 식사를 책임질 푸드코트를 비롯하여 안마 및 지압 서비스,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과 포토서비스 등이 마련되고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축산물 시식부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국내 양계산업의 긍정적인 미래를 모색하고자 9월 22일부터 1박2일간 '2011 전국 양계인대회'를 개최한다. 🍷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하림이 미국 내 닭고기 업체 '앨런패밀리푸드'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육계 농가들이 미국산 닭고기의 역수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전하며 만약 미국 업체를 인수한 의도에 이와 같은 야욕이 깔려 있다면 인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국내 육계산업 말살시키는 하림의 닭고기 역수출 야욕을 당장 중단하라'를 지난 8월 9일 발표했다. 🍌

성명서

국내 육계산업 말살시키는 하림의 닭고기 역수출 야욕 당장 중단하라!

국내 최대의 축산기업이라고 자찬하는 하림이 미국 내 19위 닭고기 업체를 인수했다고 자랑하고 나섰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인 미국의 기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같은 업계의 대표 단체로서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축하에 앞서 향후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불어 닥칠 재앙의 두려움에 벌써부터 몸서리가 쳐진다. 하림이 미국 닭고기회사를 인수한 목적이 우리나라로 닭고기를 역수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이라 공포감은 더욱 크게 밀려온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했던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두려워하고 반대해 왔건만 정작 북병은 국내 유명 닭고기 생산업체에 의해 터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 시장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온갖 몸부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림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한 회사는 연간 약 25만톤의 닭고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유통한다. 특히 이번 인수과정에서 하림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량부족 국가이므로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주창했다.

또한 국내 사육농가를 까다로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한편 미국 내에서 연간 닭고기 생산량을 30만톤까지 늘림으로써 국내 닭고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내로의 닭고기 역수출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내 육계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이 바로 하림이다. 이런 기업이 이제는 국내 육계산업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하림이 미국에서 생산한 닭고기의 역수출로 인해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국내 육계생산자 대표로서 강력하게 말 하건데 하림은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로 역수출하려는 야욕을 접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전국 육계사육농가와 국민 앞에 맹세하라! 정부 또한 작금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지도와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만약 이 경고를 묵살하고 안하무인격의 처사를 강행한다면 전국 육계 생산자의 이름으로 강력 대처할 것을 다짐하며 모든 책임은 하림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1. 8. 9

페루산 닭고기, 초과 수입시 특별긴급관세 부과

한·페루 FTA 8월 1일부터 발효... 농축산 보호장치 마련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페루산 닭고기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닭고기 및 오리고기·체다치즈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천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수출되는 총 7천286개의 품목의 대한 관세도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여기에는 국내 농축산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페루에서 수입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체다치즈, 무당연유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산물 셰이프가드라 불리는 이 제도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연간 4천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는 식이다. 또한 특별긴급관세는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므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진 뒤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육계산업은 한·페루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숯겹살된 삼겹살 대체육류로 닭고기 가장 선호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구매비율 닭고기 36%로 가장 높아

'삼겹살을 사먹을 바엔 차라리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겹살값이 치솟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 육류로 닭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패널 745명을 조사한 결과 숯값이 된 국산 돼지고기 대신 다른 육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3%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구입한 육류로는 닭고기가 36%를 차지해 대체 육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한우가 17.9%로 그 뒤를 따랐고 오리고기 16%, 수입 쇠고기 15.1%, 수입 돼지고기 11.9% 순이었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월 소득이 100~200만원인 경우 국산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샀다는 비율이 39.2%로 1위(2위 오리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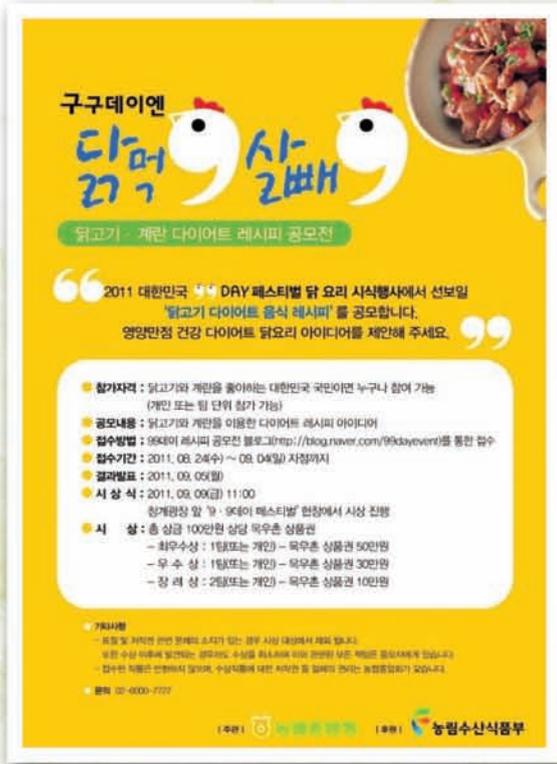


17.6%)를 차지했고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28%(2위 한우 20.0%)를 차지해 다른 육류를 제치고 1등을 기록했다.

농업관측센터에서는 닭고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삼겹살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단백질인 닭고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닭고기 · 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 개최

농협중앙회 9·9데이 행사와 연계



“닭 먹구(9) 살 빼구(9)!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한 다이어트 요리의 달인들 모여라!”

농협중앙회는 ‘2011 대한민국 9·9데이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8월 24일(수)부터 9월 4일(일)까지 ‘닭고기·계란 다이어트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닭고기와 계란의 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요리공모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닭고기와 계란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내용은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한 다이어트 레시피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접수는 행사블로그 (blog.naver.com/99dayevent)에서 할 수 있다. 참가팀 가운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9월 5일 발표하며, 9월 9일 11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9·9데이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 요리는 행사장에 전시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계란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내용은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한 다이어트 레시피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는 한 가지 식품만을 집중적으로 먹거나 먹는 양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금방 요요현상이 찾아와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닭고기나 계란을 이용한 요리는 저칼로리에 풍부한 단백질 등 영양균형을 잘 갖추고 있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여타 다이어트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성취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다이어트 레시피를 공모, 보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9·9데이 페스티벌’은 닭고기와 계란이 건강 식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물부품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9월 9일에 개최된다. 9월 9일 10시 30분까지 청계광장으로 나오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미국 2011년도 3분기 **닭고기 생산량 감소**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따라

미국의 2011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표한 월간 세계 농업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말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란 및 병아리의 입식마리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미국의 2011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4분기의 닭고기 생산량도 기존 전망치보다 7천500만 파운드 감소한 93억 파운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 4분기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국의 전체 닭고기 생산량은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384억 파운드로 예상됐다. 이는 1~5월까지의 닭고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4.8% 증가한 155억 파운드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5월까지의 생산량 증가는 도계 마리수와 도체중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11년 2분기 닭고기 생산량도 기존의 전망치보다 7천500만 파운드 증가한 94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농경연은 이처럼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이 분기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요인을 곡물가격 상승과 미국 경제성장 정체, 두 가지로 분석했다. 높은 곡물가격은 비용 상



승으로 이어졌고 미국 경제의 불황은 닭고기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닭고기 가격이 년 초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7월 19일까지 평균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2010년 동기간보다 3.4% 감소한 1억6천910만 마리였는데 이는 4주전 입란수 감소에 의한 결과라 한다. 그리고 지난 3주간 입란수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 몇 주간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경연은 밝히고 있다.

반면, 도계 일수의 증가로 인해 지난 5월의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32억 파운드였고 5월 육계 출하체중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5.81 파운드였으며 출하체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베트남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지난 2월 이후 5개월만에 다시 나타나

베트남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발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농업농촌개발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부 팡찌 성과 북부 푸토 성에서 닭과 오리 등 4천여 마리의 가금류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그는 감염이 확인된 가금류는 통상 살처분된다면서, 그러나 AI의 발생 경위와 지역 등은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월 중부 튜아티엔-훤 성에서 AI 발생이 보고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재발했다. 🍌

위장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I



김동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항생제 오남용 방지,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요구, 국내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용 항생제 절감 정책이 추진되어 사용 가능한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는데, 2011년 7월 1일부로 그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생산성 감소, 질병 발생률 증가, 축산물 품질 저하, 치료용 항생제 사용량 증가, 농가소득감소, 소비자 부담 증대,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에는 대장균,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로디움과 콕시들휴충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괴사성 장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장관은 내·외부 물질 교류하는 1차 관문인 동시에 수 억 마리의 미생물, 원충 및 기생충이 상존하는 공간으로 체내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의 50%가량이 분포되어 있어 면역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료용 항생제의 효과는 위장관내 미생물의 제어에 기인한 것으로 위장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사료용 항생제 사용 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장관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위장관의 중요성

가금 위장관의 특징

가금의 위장관은 단위동물 위장관과 형태, 기능적으로 유사하나 소낭, 근위, 1쌍의 맹장, 총배설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도, 소낭, 선위, 근위, 소장, 대장, 맹장, 총배설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료 내 영양소를 흡수하기 용이한 형태(고분자→저분자)로 분해하는 소화, 분해된 영양소를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하여 체내로 이동시키는 흡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성장, 번식, 유지 등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금 위장관의 해부학적 구조

위장관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등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장관의 연동, 분절 운동을 통해 식도의 이동 및 기계적 소화와 관여하는 동시에, 분비선이 존재하여 점액, 소화효소 및 호르몬을 분비하여 화학적 소화 및 소화계 활동 전반을 조절하고 있다.

점막층(mucosal layer)

위장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이곳의 상피세포는 주위 조직으로 함몰되어 관형 외 분비선을 형성하는데, 이곳에서 점액 및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그리고 위장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도 이곳에 분포하고 있다.

점막하층(mucosal layer)

일종의 결체 조직층으로 위장관 벽의 탄력성을 제공하는 층이다. 혈관과 림프관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위장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점막하 신경층이 위치하고 있다.

근육층(muscularis mucosa)

위장관벽의 근육섬유는 섬유의 배열방향에 따라 윤상근과 종주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측에 윤상근이, 외측에 종주근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 두 근육섬유 사이에 근층간 신경층이 존재하여 근섬유의 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위장관의 역할 및 중요성

위장관의 주기능은 섭취한 사료를 소화, 흡수하여 체조직 형성 및 유지, 성장, 번식 등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있다. 그러나 위장관의 역할 중 병원균 차단, 독소 분해 및 배출,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실제 많은 질병은 직·간접적으로 위장관에서 시작한다. 위장관은 내·외부 물질 교류하는 1차 관문인 동시에 수 억 마리의 미생물, 원충 및 기생충이 상존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장관은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내 미생물 군총의 안정적인 유지는 가금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위장관 상피세포, 면역계, 미생물총 간에는 복잡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장관의 세포주기는 매우 빠르고, 보호 점막은 수시로 재생되고 있다. 위장관 조직은 체중의 5%에 불과하지만 단백질 소모량 및 대사량은 15~30%에 달한다. 위장관은 물리적, 화학적 장벽을 형성하여 세균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장관 내 유익균이 증식,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균에 대한 경쟁적 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장관 방어기작은 점액층을 통한 물리적 방어, 항세균성 peptide 및 항체 분비를 통한 유해균의 서식 및 증식 억제, 위산, 담즙산 및 기타 효소 분비를 통한 미생물 사멸 및 장내 환경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위장관 상피세포, 면역세포, 미생물총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인지면역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면역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장관 점액층

위장관 점막에서는 뮤신(mucin)이라는 점액물질을 분비하여 위장관을 보호하는 한다. 뮤신은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배상세포에서 합성·분비되는데 sialic acid, sulfate 등이 존재하여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어 알루미늄과 같은 독성 금속을 포집하여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장내 유익균이 장점막에 부착, 서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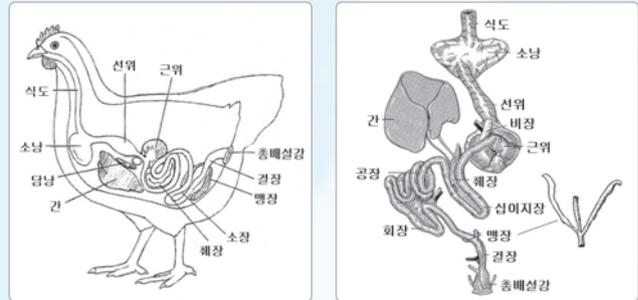
위장관 면역세포

위장관에는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의 50%가량이 분포되어 있는데, 체내 최대 림프조직인 장 관련 림프 조직(GALT, gut associated lymphatic tissue)이 존재하며, 점막 상피기저에서는 IgA, 라이소자임(lysozyme)과 디펜신(defesin)과 같은 항세균화합물을 생산·분비하여 체액 면역을 이루고 있고 매우 복잡한 신호를 교환하여 세포매개면역과 공조한다. 세포면역으로는 Th-1, Th-2, Treg로 대표되는 T림프구들이 염증반응과 관용반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세포막에서 PRR(pattern recognition receptor)의 한 종류인 TLR(toll like receptor)의 역할 및 기능이 밝혀졌다.

위장관 내 미생물총

위장관 내 서식하는 세균총은 닭 체세포수의 10배에 달하며, 이들은 경쟁적 배제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이 위장관에 정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비타민 B군, 효소, 미지 성장인자 등을 합성·분비하여 위장관 발달 및 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1> 닭의 위장관



위장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사료용 항생제가 가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작용기전의 핵심은 위장관 내 미생물총 조정 및 안정화에 있다. 역으로 표현하면 사료용 항생제 사용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 질병 발생률 증가 등의 문제는 효율적인 위장관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장관내 미생물이 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 ① 닭과 미생물 간의 영양소 경쟁
- ② 면역반응유도로 인한 가축이 식욕저하, 체단백질 분해
- ③ 질병 유발, 특히 괴사성 장염
- ④ 소화효소 변성·분해 및 영양소 흡수부위 감소에 따른 영양소 소화·흡수율 감소
- ⑤ 미생물 유래 polyamine, 휘발성 지방산에 의한 위장관 크기 증가로 인한 유지에 필요한 대사에너지 증가

사료용 항생제는 체내 흡수되어 닭의 대사생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미생물을 제어함으로써 위장관 내 미생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무균동물(germ-free animal)의 경우 사료용 항생제 첨가 급여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위장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료, 사양관리, 사육환경, 질병·방역관리 등 닭을 둘러싼 모든 내·외부 환경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이후 각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

(다음호에 계속)

개인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8 월	이름	농장명	금액	주소
	양영생		90,000	전북 남원시 이백면
	박인규		83,550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문한순	진석농장	100,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이달준	인촌농장	12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김국록	주원농장	225,000	경북 구미시 고아읍
	박금수		210,000	
	박영호		360,000	

8 월	이름	농장명	금액	주소
	백성순	성경농장	211,710	
	김종선	성수농장	158,100	충북 청주시 주덕읍
	김종국		180,000	충남 논산시 성동면
	이호진	호진농장	480,000	충남 당진군 정미면
	노철환		150,000	
	변준석	찬송농장	150,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계열사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합 계 목 우 촌 6 월	오정길	167,871	경북 영천시 매산동
	박경애	58,470	경기도 양평군 지체면
	오정길	128,646	경북 영천시 매산동
	박유경	116,48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정충환	193,44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오정길	141,528	경북 영천시 매산동
	양평	199,896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유용식	78,552	충남 서산시 인지면
	신효정	175,662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김성노	22,851	전남 나주시 운곡동
	최규병	15,156	김천시 지례면 교이리
	여두선	16,620	경기도 평택시 고동면
	황봉서	41,301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구	21,822	대구 달서 대천
	이병규	137,133	충북 괴산군 증평읍
	영천	38,523	경북 영천시 문외동
	김인중	47,427	강원도 인제군 남면
	김광수	63,060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이영국	64,059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이상훈	77,61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오해진	15,258	충북 청원군 가덕면	
에 이 스 축 산 6 월	전차진	185,850	경남 창원군 창녕읍
	장해열	148,500	경북 김천시 남면
	서정조	171,390	경북 칠곡군 기산면
	박형규	102,300	경남 함안군 산인면
	김동환	120,720	경북 경산시 압량면
	박규환	292,590	경남 합천군 쌍책면
	이선진	98,600	경남 밀양시 단장면
	정영자	85,530	경남 창원군 창녕읍
	성기일	54,480	경북 의성군 구천면
	김병필	190,000	경남 합천읍 초계면
	송재홍	91,1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김찬현	73,680	경북 청송군 부동면
최인중	79,800	경북 김천시 감문면	
임채문	88,410	경남 거제시 둔덕면	
체 리 부 로 6 월	가순옥	110,520	충남 태안군 태안읍
	강희석	76,320	충남 당진군 고대면
	권영환	113,760	충남 보령시 청소면
	권혁부	150,960	경북 상주시 사벌면
	김건수	134,07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광석	202,545	경기 화성시 송산면
	김종국	255,270	충북 충주시 산척면
	김만성	142,740	경북 정읍시 태인면
	김병협	224,940	경남 장성군 진원면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체 리 부 로 6 월	김상호	597,000	전남 나주시 공산면
	김선용	166,020	충남 서산시 운산면
	김세현	92,700	충북 진천군 덕산면
	김승남	137,880	충남 아산시 둔포면
	김영렬	72,000	충북 충주시 주덕읍
	김영민	201,300	전북 임실군 지사면
	김오식	163,080	충남 부여군 초촌면
	권은아2농장	124,800	충남 부여군 내산면
	김용수	88,260	충남 홍성군 광천읍
	김의영	59,670	충북 충주시 주덕읍
	김재광	175,080	경기 여주군 강천면
	김창수	101,190	충남 당진군 합덕읍
	김현옥	155,700	경기 화성시 우정읍
	김형권	108,840	충남 부여군 홍산면
	김홍연	181,320	전북 익산시 황등면
	나찬수	126,090	충남 당진군 석문면
	박대호	145,65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박수만	199,050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박정식	115,740	경북 상주시 공성면
	반개문	89,220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미선	149,850	전북 정읍시 이평면
	백종렬	129,840	충남 당진군 송악면
	서훈복	145,8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성백승	66,27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성상모	35,460	충남 당진군 정미면
	성황용	40,83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송영대	120,81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송영태	176,79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송하정	125,100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신귀례	81,300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현구	156,120	전남 영광군 백수읍
	안상기	114,270	충북 충주시 앙성면
	양상순	132,690	충북 보은군 탄부면
염관성	419,250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오인현	158,700	경남 산청군 산척읍	
오종성	18,00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윤미자	105,570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이교완	34,440	충남 부여군 내산면	
이동용	212,34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이만구	151,65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병일	19,17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상정	382,560	충남 홍성군 소이면	
이용균	279,12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이유순	101,58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체리부로 6월	이재만	34,26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이재형	148,230	경기 여주군 흥천면
	이재환	113,100	경북 안동시 녹전면
	이정남	71,580	충남 부여군 남면
	이청규	124,542	충북 홍성군 대소면
	이현자	75,420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이홍재	232,86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임근수	95,460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임은채	246,690	전북 고창군 아산면
	장재은	93,690	충남 홍성군 서부면
	장현호	112,320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억영	195,87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정세영	147,270	충남 부여군 은산면
정용택	55,620	충북 충주시 신니면	
정정환	103,650	충남 서산시 대산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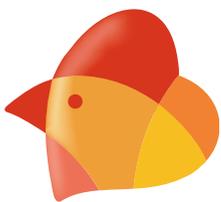
도계장	이름	금액	주소
체리부로 6월	정해순	251,310	충북 진천군 덕산면
	정해환	54,99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정현구	70,350	충남 서산시 인지면
	조병섭	123,540	충북 청원군 북이면
	조정욱	85,95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조현성	68,100	충남 천안시 풍세면
	차영호	62,49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최기수	84,330	강원 홍천군 서면
	최길영	190,770	경기 화성시 장안면
	최병용	287,130	전북 익산시 남산면
	한경택	104,190	경기 안성시 보개면
	홍석희	117,210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황승용	101,760	충남 당진군 석문면
황유동	183,000	충남 홍성군 광천읍	

도계장	월	금액
농협 목우촌	8월	1,821,384
하림	8월(5일)	911,212
에이스축산	8월	4,537,080
육성	8월(9일)	167,070
마니커동두천	8월	2,364,175
금계	8월	2,358,270

도계장	월	금액
한강 CM	8월	175,170
매산 씨앤	8월(12일)	1,855,578
매산 씨앤	8월(12일)	1,930,818
하림	8월(16일)	386,610
육성	8월(16일)	141,660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발전에 쓰입니다.

자조금납부에 참여해주신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계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육계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육계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육계CEO과정 교육, 계속되는 장마 등으로 연기돼

대한양계협회, 빠른 시일안에 의견수렴 거쳐 실시 키로

육계농가들의 농장경영 역량과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문육계 CEO 과정' 교육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전문육계 CEO과정' 교육을 주관하는 대한양계협회는 올해 경기·충북일원에서 1차, 전북·전남일원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불볕더위와 지리한 장마 등으로 농가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농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3권 제9호 통권23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1년 9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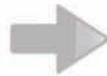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



농가출하

육계, 삼계, 재래닭, 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제11조제3항)



농가 직접 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5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

